



이슬람사상과 문화의 정수 「코란」의 배경 연구

—외국어대 金容善교수



중동사태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감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중동 땅에서 땀 흘리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 땅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스럽다. 뜨거운 모래의 나라,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율법을 고수하는 지역으로만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국내 학계에서는 이슬람세계를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연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서양사나 동양사의 한 부분에 끼워 언급하는 정도지요. 이슬람의 문화는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을 이룩하면서, 동서양의 중간적 위치에서 양쪽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10억 인구의 이슬람문화를 학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대학교 金容善교수(51. 아랍어과)는 요즘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코란」의 사상과 그 역사적 배경을 주제로 한 연구서를 집필하느라 여념이 없다. 金교수는 몇해 전 「코란」을 우리말로 번역해낸 바 있다. 그러나 「코란」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따라서 이번 연구서에서는 코란사상의 핵심을 분석하는 한편, 그 형성배경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金교수는 말한다.

무하마드의 영적인 순례의 기록인 「코란」에는 신의 말씀과 계시, 갖가지 교훈들이 수록되어 있다. 「코란」의 핵심사상이라면 신의 유일성과 聖俗의 일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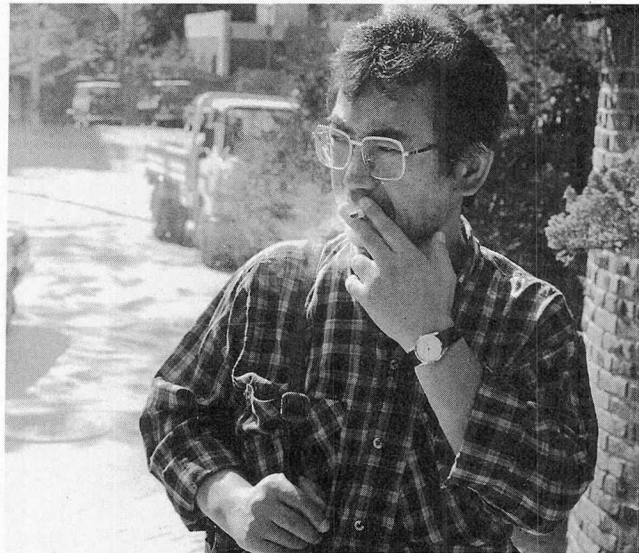
들 수 있는데, 이는 모슬렘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학, 철학 등 이슬람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칼라일은 ‘코란의 번역서를 읽는 것은 마치 모래를 씹는 것과 같다’고 그 난해함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란」은 역시 원어로 읽을 때 아름다운 운율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지요. 특히 여기에 담겨 있는 구절구절은 많은 작가들의 문학적 영감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코란」의 연구는 아랍어권의 문학을 이해하는데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워낙 국내에서 이 분야의 연구가 초보단계에 있어 자료수집에 많은 고충을 겪기도 했지만, 그만큼 앞으로의 연구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고 金교수는 말한다.

대학시절 사학도로서 이슬람역사에 관심을 두었던 金교수는, 66년~69년에 이집트 카이로대학에서 아랍어와 역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아랍인들하면 요즘 TV뉴스 화면에서 보듯 광적인 테러리스트들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가 만나본 사람들은 마치 시골촌로와 같이 인정많은 모습들이었다고. 이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갖고 있던 사소한 편견, 서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형성된 잘못된 인식들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金교수는 덧붙인다.

—오에리 기자



상처받는 서울 변두리마을 빈부의 갈등 그린 「눈물의 변증법」

—소설가 朴榮漢씨



월남전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는 전쟁의 참혹함과 아픔을 냉정하게 그려내

문단의 주목을 끌었던 朴榮漢(40). 「머나먼 송바江」의 작가 박영한씨가 요즘 살고 있는 안산에서 서울나들이도 삼가고 마무리에 힘쓰고 있는 작품은 「눈물의 변증법」, 부제 「과수원 洪氏傳」. 올 여름 문예지에 발표한 중편 「왕릉일가」와 「오란의 딸」에 이은 연작 중편이다.

“「왕릉…」 「오란…」과 마찬가지로 이 소설 역시 우묵배미라는 마을이 배경입니다. 우묵배미는 행정지역상 경기도이면서 서울의 외곽권에 위치한 경계마을이지요. 이곳에는 농촌-전통적인 것과 도시-문명적인 것이 만나면서 빚어지는 갈등과 삶의 불꽃들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버스를 타면 1시간 정도 걸리는 반농·반도시적인 마을. 전통적인 농사꾼과 서울에서 밀려난 변두리 낙오자들이 모여 사는 우묵배미는 비단 소설 속의 한 마을만이 아니다. 이 시대 산업화의 물결에 밀려 충격을 겪으며 붕괴되어 가는 서울 근교의 상처입은 농촌의 모습을 반영해주는 곳이다.

「눈물의 변증법」은 몰락한 지주인 왕릉의 사촌 구용씨 집안 이야기로, 몰락한 지주와 소작인 牧夫 사이의 투쟁을 그리고 있다.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선의와 악의로 나누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貧富를 조명해보려는 시도이다.

“변증법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듯 이 소설의 참맛은 리얼리티에 있습니다. 빈자도 부자의 편도 아닌 중간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갈등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씨가 변두리 삶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 스스로가 가난한 예술가로서 작품을 쓸 수 있는 조용한 방 한칸을 얻기 위해 능곡, 덕소, 김포 등 서울 주변을 전전했던 시절부터 84년 계간 「문예중앙」에 발표했던 「지상의 방 한칸」에서도 이미 우묵배미 마을이 등장하는데, 말하자면 이것이 「왕릉…」이래 연작들의 모태가 되는 작품이다.

“「지상의 방 한칸」에서는 주인공이 작가 자신이었던데 비해, 「왕릉…」연작에서는 각 작품마다 주인공이 바뀌면서 작가의 체험이 3인칭에게 골고루 분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이 보다 객관화되고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양귀자씨의 「월미동이야기」가 보다 도시적인 거라면 이 왕릉연작은 보다 농촌적인 성격을 띠니다.”

박영한씨가 왕릉연작에 쏟는 애정은 대단하다. 이 작품을 쓰기 위해 그는 이전까지 써오던 서구형 문체를 버리고 해학적이고 구수한 맛이 담긴 우리네 문체로 탈바꿈했다. 특히 「눈물의 변증법」에서는 종래 그의 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날카로운 해학과 두툼한 입심을 만나리라는 얘기가.

“앞으로 「은실네 바람났네」「요셉네 경사났네」 등의 연작 중편을 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으로 일단 이미 나온 것을 포함해서 4편은 마무리지어야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장편의 골격을 갖추고 있다는 왕릉연작중편들, 작가 자신은 산업화의 충격으로 간직해야 할 것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가슴아파하고 우리 스스로 산업화의 응달도 눈여겨 보아야 할 때임을 일깨우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박경순 기자